[PHOTO] 핀 율의 ‘치프테인 의자’

CULTURE

2012 / 05 / 24

ART IN CULTURE

핀 율 <치프테인 의자(Chieftain Chair)> 1949 덴마크 국왕 프레데릭 9세가 앉았던 의자로 유명하다.

전시는 매달 새로운 주제로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. 5월부터 9월까지 각각 ‘스칸디나비아 인 코리아’ ‘우먼스 스페셜’ ‘서머 파티’ ‘칠드런스 데이’ ‘스칸디나비아 오텀’ 등이 예정되어 있다.

제보 | 정수진 artWA 서포터즈